



2007년 부동산 펀드, 중국 관련 펀드에 이어 올해에는 금, 곡물, 광물 등에 투자하는 원자재 펀드가 인기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3월 5일부터 일주일간 36억 달러가 원자재 펀드에 몰려들었으며,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원자재 펀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단기 수익률만 노리다간 '위험천만'

## 전세계 금·곡물값 급등 일주일새 36억달러 몰리기도 원자재 수급 조정엔 손실 예상 ... 분산투자가 바람직

문제는 단기적인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는 위기와 기회가 반복되었던 과거 20년의 교훈이기도 하다.

1987년 하루동안 22%의 주가가 폭락했던 블랙먼데이를 시작으로 촉발된 유동성의 이동이 일본의 부동산 가격과 주가를 폭등시켰고, 이 버블이 붕괴되자 유동성은 동남아로 넘어가 아

시아 외환위기를 촉발시켰다.

이후 국제적인 유동성은 IT 산업으로 몰렸다 몰락했으며, 여기서 발생한 유동성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가 결국 작년 서브프라임이라는 병을 만나 무너지고 말았다.

문제는 일반적인 경우 거품을 발생시키면서 전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들은 수익을 보고 이후 폭지에 다다랐을 때 일반 투자자들의 러시가 시작된

다는 데 있다.

현재 원자재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원자재와 관련한 가격이 급등하여 조정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돈이 계속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작년부터 유가가 오르고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농산물 가격은 애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릴만큼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원유가격 및 산업용 금속류의 가격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한 원자재 수요증가 영향으로 가격도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에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 원자재 펀드의 거품

### 사회적 책임 우수 기업

### 전경련, 리스트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강화를 위해 기업들의 이행수준을 평가하고 우수기업 리스트를 발표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13일 오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정례 회장단 회의를 갖고 "경제 살리기의 핵심주체인 기업은 지금까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기업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본연의 책임은 물론 법적, 윤리적, 사회공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CSR 강화를 위해 전경련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회원 기업들의 CSR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우수기업 리스트를 공표해 벤치마킹의 모델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 기업내 CSR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경련 내 기업윤리위원회와 강화해 CSR 이행 실태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과 노사화합, 기부 및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을 통해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의 방침에 호응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살리기에 앞장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회장단은 회의 후 전경련 사무국을 통해 내놓은 발표문에서 "특히 최근 정부가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기업들도 기투자계획을 재검토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져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고용 유연성 높을수록 수출 경쟁력도 좋더라"

### 韓銀연구원 보고서

고용조정이 신속적으로 이뤄지는 업종일수록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이 내놓은 '제조업 업종별 특성과 수출경쟁력' 보고서에 의하면 1993~2006년 국내 제조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임금, 노동투입량, 이직률, 연구개발투자 등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고용의 유연성이 높은 업종일수록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주활동이 활발하고 연구개발투자가 많은 업종도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그러나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고 물동량이 많은 업종일수록 수출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공업의 경우 노동생산성과 신규노동투입량, 고용의 유연성 등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중화학공업의 경우 외주활동의 활발함의 정도, 금융비용 등이 수출경쟁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의 비중이 높은 업종일수록 수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이 시장의 수요와 구조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화이트데이 사랑 선물 인기

화이트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광주시 동구 한 팬시점이 연인이나 가족들에게 선물할 사탕과 초콜릿을 사려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 서민맞춤대출 서비스 이용자

## 4만4천만명 달해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이용자가 4만4천384명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대출을 받은 사람은 6천794명, 승인금액은 305억원이었다. 서민맞춤대출 안내서비스는 이용자의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한국이존이 운영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지난해 1분기 2천581명에서 2분기 5천901명, 3분기 5천815명, 4분기 5천764명으로 환승론이 시행된 2분기 이후 큰 변화가 있었다. 올 2월 현재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업체의 대출금리는 48.9%, 저축은행은 43.0%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환승론의 경우 올 2월까지 총 1천932명이 신청해 882명에 대한 대출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업체 대출 1천600여건(44억원)이 제도권 금융회사로 환승됐다. 환승론 대출금리는 2월말 기준 평균 37.1%로 시행 초기 44.7%보다 낮아졌다.

김갑원은 환승론 참여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권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권 자회사 등의 환승론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자회사인 우리파이낸셜은 은행권 자회사 중 처음으로 5월중 환승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유학·연수비 지출 석달째 감소

### 1월 중 5억달러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해외유학·연수비 지출액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처럼 해외유학·연수비 지출이 석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거의 7년만에 처음이다.

일부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해외유학·연수자가 나갈 만큼 나갔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파른 증가세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없지 않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해외유학·연수비 대외지출액은 5억6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감소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4.3%, -2.1%를 기록한 후 석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한 것이다.

앞서 작년 9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한 것까지 감안하면 추세적인 하락세가 엮여있다. 이처럼 유학·연수비 지출이 석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0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이너스를 나타낸 이후 처음이다.

유학·연수비는 2006년초까지만해도 매달 40% 안팎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으로는 50억9800만달러나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작년초부터는 증가율이 10%후반으로 둔화된 후 하반기부터는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 국세청 '인사 태풍' 부나

### 고위직 간부 2명 사의 ... 향후 파격 인사 여부 촉각

국세청의 차장과 지방청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임박했다.

13일 정부 관계부처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한상환 청장이 유임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공식 인 분청 차장을 비롯해 1급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

1급 인사에 이어 지방청장과 국·과장급에 대한 연해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과 내부 혁신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인사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한 청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함

구하고 있어 정확한 인사 시기와 규모 등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차장 등 1급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서울청장·중부청장 사의=인사를 앞두고 청장과 행정고시 21회 동기인 오대식 서울청장(1급)과 권춘기 중부청장(1급)은 후배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청장의 인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세청 고위공무원들 중 행정고시 21회는 7명이다.

또 서울과 중부 이외에 광주·대구 등 지방청장들 중에서도 인사와 관련해 거취를 결정할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저축은행 위기로 확산

### PF 대출 부실 지방 소형 은행들 경영 악화

일부 저축은행의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저축은행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부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저축은행간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에서는 바람으로 내몰리는 소형 저축은행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다.

13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110여개 저축은행 중 6개사가 BIS비율이 5%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BIS비율 5%는 자산 건전성이 좋은 저축은행과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을 가르는 경계선 의미가 강하다.

권고가 내려지고 1~3%는 경영개선 요구가, 1% 미만의 저축은행에는 경영개선명령 등 단계적으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BIS비율이 2006년 12월말 6.58%에서 지난해말 -16.96%로 급락한 경기 분당저축은행은 최근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호남지역에는 BIS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이 3곳(4.22%, 3.50%, 3.65%)이 있었다.

다만 PF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의 경영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지만 이런 분위기가 전체 저축은행 업계로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쉽사리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및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무진주디자인연구소     | 시각디자이너                     | 고졸/경력1년  | 회사내규      | 03/21 | 062-233-9235 |
| 대신도양          | 인포메이션, 안내/사무보조 각사원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03/17 | 062-385-6006 |
| 대신테크          | 일반직(품질개발 사원)               | 초대졸/경력무관 | 1600~1800 | 03/18 | 062-953-1310 |
| 동양파이낸셜(주)     | [광주]법무(일반승무) 결역사원          | 고졸/경력1년  | 회사내규      | 03/18 | 02-405-3458  |
| (주)대영         | 공무및 설계/ 프로그램/ 현장관리/ 영업/ 경리 | 대졸/경력무관  | 2400~2600 | 03/20 | 062-670-0321 |
| 엔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 엔코코리아(광주공장) 사무직(여)         | 초대졸/경력무관 | 1800~2000 | 03/20 | 062-970-8212 |
| 유임컴퓨터학원       | 전임강사 및 시간강사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3/20 | 010-525-2474 |
| 토익건설(주)       | 토목기사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3/20 | 062-604-1336 |
| 초록효소          | 실험 및 연구, 생산관리, 사무 및 상품디자인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3/20 | 011-609-2981 |
| (주)H&T        | [SKT/주5일]114/CRM 멀티상담원     | 초대졸/경력무관 | 2200~2400 | 03/20 | 062-350-6333 |
| 동림전자(주)       | (연구개발)생산관리,품질관리) 경력사원      | 고졸/경력3년  | 2200~2400 | 03/21 | 062-952-7272 |
| 우암한방병원        | 간호사 및 기타근무자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3/21 | 062-601-2207 |
| (주)옴네스        | 국내영업/해외영업 대졸사원             | 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3/21 | 062-971-3955 |
| (유디지탈)미크로     | 컴퓨터 하드웨어 주변기기 유통업무         | 초대졸/경력무관 | 1200~1400 | 03/21 | 016-587-8575 |

(광주지프리아 512-6210 제공)

## 상반기 대기업 공채

### 1만5000명 ... 8% ↑

올해 상반기 대기업들의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잡코리아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437개사의 상반기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51.7%의 기업이 올해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는 가운데 규모가 1만5천78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3% 증가할 수 있다.

채용규모가 크게 늘어난 업종은 유통·무역업(28.2%), 금융업(18.1%), 조선·중공업(14.9%), 식음료·외식업(10.9%), 기계·철강업(9.1%), 석유·화학업(6.9%) 등이었다. 반면 운수업(-3.8%)과 제조업(-2.9%)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별로는 ㈜두산이 5월 초에 신규인력 300여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지엠대우오토엔터테인먼트도 지난해 보다 50% 늘어난 300명 정도의 인력채용을 다음달에 실시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다음달에 300명 정도를, LG디스플레이도 이번달에 200여명의 규모의 채용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5월 이후 150명의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작년 상반기 120여명을 채용했던 한국원광은행도 상반기 중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채용을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두산인프라코어 120명(4월 중순), GS리테일 100명(5월), 대림산업 100명 예상(4월), LG상사 80명(5~6월), LG생명과학 60여명(4~5월경) 등의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